

2004 ICOLD 연차회의 개최기



고석구
신우엔지니어링 사장
前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병만
K-water 수도권지역본부장

는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내에 오도되고 있는 댐에 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는 한편, 남북한 공유하천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문청취의 계기로 삼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댐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국내의 기술 수준을 홍보함으로써 국내 댐 및 수자원 개발기술의 해외진출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ICOLD 연차회의 유치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만이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히 중국 베이징에서 2000년 9월에 총회·연차회의가 개최된 지 불과 4년 만에 또 아시아 대륙인 한국에서 회의를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타 대륙의 반대가 심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담회는 기필코 유치하고 말겠다는 각오로 ICOLD 총재단과 주요 회원국을 각개전투 전략으로 설득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2001년 9월 9일~9월 15일까지 독일 드레스덴에서 개최된 제 69차 연차회의에 참석했다.

고석구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회의 기간은 물론 늦은 시각까지 ICOLD 총재와 사무총장, 각국의 대담회 회장들과 돈독한 우의를 쌓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드레스덴에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시내의 엘베강 유람선 선상(船上)에서 ICOLD 총재단과 미국, 일본, 독일 대담회장들을 초청해서 와인 파티를 했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유람선내에 준비해 두었던 와인이 동이

났으며, 지배인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들이 아껴 두었던 와인까지 공짜로 가져오는 등 한국인 특유의 통큰 문화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다음날 새벽 고석구 회장은 ICOLD 사무총장과 2004년 서울회의 유치에 대한 담판을 했는데, 그 결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얻어 냈고 미국, 중국, 일본 대담회장 등도 지지를 해줌으로써 서서히 서울 유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엘베강 유람선 식당의 지배인이 한국인 관광객을 만나면 '넘버원'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독일에서 귀국한 후 한국대담회는 여세를 몰아 2001년 10월 31일 댐기술 국제심포지엄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ICOLD 부총재와 미국, 일본의 대담회장을 초청하여 서울 유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고, 이듬해 2002년 4월 1일에 공식적으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였다. 한국 개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가 어느 정도 확산되자 한국대담회 회장단에서는 가급적이면 회원국 모두가 만장일치로 한국 개최를 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의 유치 신청을 원천봉쇄하는 전략을 펼쳤는데, 2~3개의 유치의사가 있던 국가들이 한국을 지지하는 회원국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포기를 함으로써 대세가 한국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는데, 2002년 9월 27일 제 70차 ICOLD 브라질 이과수 연차회의 집행위원회에서 참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한국 개최가 확정되었다. 고석구 회장은 수락 연설



고석구 회장의 서울회의 유치 수락연설
(2002. 9.27 브라질 이과수 제 70차 연차회의)

을 통해 2004년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 72차 ICOLD 연차회의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만큼 북한과 저개발국가 등 82개 회원국 모두가 서울회의에 참석하여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즐겁고 흥겨운 일정이 되도록 계획하여 관광과 축제의 연차회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 준비 단계

한국대담회는 2004년 제 72차 ICOLD 연차회의 유치를 확정하고 귀국한 후, 기쁨은 잠시였고 바로 긴박한 상황에 돌입하였다. 그 이유는 앞으로 남은 약 1년 6개월 동안에 연차회의를 완벽하게 준비하기에는 한국대담회 사무국 조직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이다. ICOLD 연차회의는 행사 규모 및 기간, 참가 회원국 수 및 참가자 등의 측면에서 한국대담회가 겪어본 경험이 없었던 가장 큰 규모의 국제회의였다. 이에 따라 당시 한국대담회 회장을 맡고 있던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002년 10월 공사 직원 5명을 대담회로 파



ICOLD 2004 서울회의 조직위원회 현판식 (2002.11.21)

견하여 ICOLD 2004 서울회의 임시 사무국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착수하였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행사를 기획·총괄하고 이끌어 갈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조직위원회에는 수자원공사, 학계 및 연구기관, 엔지니어링사 및 건설사를 총망라해서 수자원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특히 국내 원로회원과 미국, 일본대담회 등의 회장단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도 위촉함으로써 그 위상을 갖추었다.

2002년 11월 21일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ICOLD 2004 서울회의 조직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조직위 위원장에는 고석구 한국대담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선임됐으

며, 부위원장에는 이길성 서울대 교수, 심포지엄 위원장은 윤용남 고려대 교수, 사무총장 김우구 수자원연구소장 등 총 37명의 조직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조직위원회 내에 설치된 사무국은 학술편찬, 행사전시, 홍보출판, 수송견학, 재정 등 5개 분과 총 32명으로 구성하였다.

조직위원회가 발족된 뒤, 사무국에서는 2002년 12월초부터 2004년 5월 행사 개최까지 준비해야 할 업무를 주(週) 단위로 세부적으로 구분한 뒤 아이템별로 추진했다.

먼저 서울회의 명칭, 일정, 장소 및 엠블럼 등을 확정하였으나, ICOLD 연차회의 준비시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상 프랑스 파리에 있는 사무국과 사전에 협의한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회의 일정은 관례적으로 6일 동안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당시 ICOLD 사무총장이었던 Mr. Bergeret의 요청에 따라 기술분과위원회(Technical Committee)와 집행위원회(Executive Meeting)를 1일 연장하여 2004년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 : ICOLD 2004 서울 회의 • 영문 : ICOLD 72nd Annual Meeting • 불문 : 72eme Reunion annuelle de la CIGB
기간	• 2004년 5월 16일(일) ~ 5월 22일(토)
장소	• 웨라톤 그랜드 워커힐 컨벤션센터(서울)
공식언어	• 영어, 불어
엠블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댐을 형상화한 ICOLD의 문양과 우리나라 건축기술을 대표하는 보물1호 남대문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현대와 고전건축의 조화를 추구

ICOLD 2004 서울회의 행사 개요

5월12일~ 5월15일	5월16일 (일)	5월17일 (월)	5월18일 (화)	5월19일 (수)	5월20일 (목)	5월21일 (금)	5월22일 (토)	5월23일~ 5월27일
Pre Tour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오전		Post Tour
	등록	ICOLD 회장단 및 분과위원장 회의	ICOLD 기술분과 위원회 회의	Technical Tour (충주댐)	워크샵	ICOLD 집행위원회	심포지엄	
	전시회	전시회	전시회	전시회	전시회	전시회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ICOLD 총재단회의	ICOLD 기술분과 위원회회의			Technical Tour (충주댐)	ICOLD 집행위원회	ICOLD 집행위원회	심포지엄	
	전시회	전시회	전시회	전시회	전시회			
	환영리셉션	문화공연					환송연	

ICOLD 2004 서울회의 일정

행사개요가 확정됨에 따라 사무국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에 매달렸는데,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한다면, ICOLD 사무국이 있는 프랑스 파리와 ICOLD 서울회의 사무국이 있는 대전과는 7시간의 시차가 발생해서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늘 새벽 1시내지 2시에 파리 사무국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고생을 하기도 했는데, 이따금 새벽 3시쯤 연락을 하면 파리 사무국 직원들이 “당신들은 잠도 안자냐?”는 농담과 격려를 주고받기도 했다.

개략적인 회의 개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무국에서는 본격적으로 행사 준비에 들어갔는데, 국제회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많은 참가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가급적 ICOLD 연차회의 최초로

82개 회원국 모두가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참가 유치 활동을 펼쳤다. 한국대담회는 ICOLD 연차회의를 주최하는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82개 회원국 중 국가 경제사정이 어려워 연차회의 참석을 못하고 있는 부르키나파소, 네팔, 콩고, 마다가스카르, 헝가리, 수단, 코스타리카, 앙골라, 볼리비아, 우루과이, 알제리, 알바니아, 과테말라, 크로아티아, 가나, 온두라스 등 16개국을 선정하여 참가 경비를 면제해 줌으로써 ICOLD 회장단은 물론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았다. 특히, 남·북한 수자원 기술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8년에 ICOLD 회원국으로 가입한 북한을 초청국가 대상에 포함하여 2004년 서울회의에 참가하도록 ICOLD 사무국과 중국 대담회를 통해 의사 전달을 했으나 끝내 참가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다. 회의개최 준비가 어느 정도 무르



ICOLD 총재단, 국제 댐안전 심포지엄 참석 (2003.11.10)



ICOLD 총재단 서울회의 Check-Point Meeting (2003.11.11)

익자 2003년 11월 11일 Mr. Viotti ICOLD 총재를 비롯한 5명의 회장단이 방한하여 회의 장소인 워커히 호텔과 Technical Tour 코스인 충주댐 등을 돌아보며 서울회의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서울회의의 준비 상황에 매우 흡족한 평가를 해 주었고 특히, Mr. Viotti 총재는 한국대담회 측의 저개발 회원 국가 참가 지원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서 조직위원회의 결단이 성공적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3. 회의 개최

약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2004년 5월 16일 제 72차 ICOLD 연차회의가 워커히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막이 올랐다. ICOLD 연차회의의 역사상 최대 규모인 65개 회원국에서 Mr. Viotti 총재, 중국 수리부 부부장과 러시아 및 이란의 에너지부 차관을 비롯하여 국내외 댐 관련 전문가 938명이 참가 등록을 마쳤다.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회의기간 중의 심포지엄과 워크숍은 당시 한국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

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ESSD), 댐 안전(Dam Safety)을 주제로 각각 열렸는데 두 학술회의는 전 세계 석학들이 160여편의 논문을 제출함으로써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논문들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댐 안전 문제 등 국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또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전시회가 함께 개최되어, ICOLD 회원국들은 自國의 댐 건설, 장비 및 계측기기 관련 전문기업을 소개하고 기술과 제품을 전시하였는데 약 3,300명이 전시회장을 방문하여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회의의 기간 중에는 각국 정부의 수자원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가하여 한국과의 기술교류와 협력을 약속하였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설사들이 진출해 있는 중동의 이란 등과의 교류는 우리나라 수자원기술의 해외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받기도 하였다. 특히, 한-중-일 대담회 기술협약은 동아시아(EADC) 댐기술



ICOLD 총재단 및 분과위원장 회의 (5.17)



전시회 개막식의 Ribbon Cutting (5.17)



Welcome Reception (워커히 제이드가든, 5.17)



고석구 회장과 Mr. Viotti 총재의 Cheers! (5.17)



Asia-Pacific Group Special Session (5.18)



Cultural Program중 리틀엔젤스 평화메달 증정 (5.18)

교류회의로 확대되어 지난해까지 7회 대회로 지속되고 있다.

서울회의에서 거둔 또 하나의 수확은 ICOLD 총

재단에 윤용남 교수가 부총재로 선출된 것이다. ICOLD 총재단은 총재와 6명의 부총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총재단 진입을 노력 해왔으나 번번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한-중-일 대담회 기술협약 체결 (5.18)



한-러 대담회 MOU 체결 (5.21)



중국 水利部와 기술협력의향서 체결 (5.20)



한-이란 수력청(IWPC)와 MOU 체결 (5.22)

장벽에 가로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서울회의를 통해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으며, 이후 ICOLD 내에서 한국의 위상도 크게 올라갔고, 댐 기술에 대한 한국의 전문력도 인정받는 계기도 되었다.

4. 맺음말

2004년 ICOLD 서울회의는 참가국이 총 65개국에 이르러 수자원분야의 수 세계 협의체로서 큰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참가국 중에는 수자원 분야 선진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등 아직

은 수자원분야의 개발 前 단계에 있는 국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인적 교류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서울회의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주었으며, 한국인 특유의 치밀함과 섬세함이 외국 참가자들에게 크게 각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풍속과 이미지에 놀라고 찬사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된다.

에피소드 하나를 더 얘기하면, 아래에 있는 한복을 입은 여인 포스터는 ICOLD 서울회의를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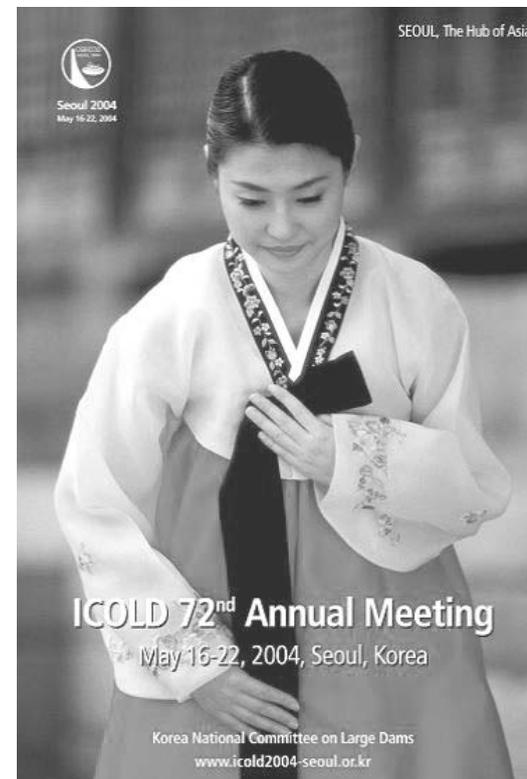
하는 이미지로 가장 좋다는 중론이어서 사진 모델과 연락을 해서 어렵게 초상권 사용 허락을 받았는데, 역시 회의기간 내내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많은 참가자들이 1부씩 달라고 할 정도였고, 특별히 동반자 프로그램에 한복입기 체험 코스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서울회의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환송연 끝난 뒤 서울회의의 성공적인 폐막을 축하하고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ICOLD의 Mr. Viotti 총재, Mr. Bergeret 사무총장, 고석구 회장, 김우구 사무총장, 미국대담회 Mr. Walz 총재 부부, 일본 대담회 일행이 행사장인



동반자 프로그램, 한복 입기 체험 (5.20)

워커힐 호텔에 있는 노래방(도우미는 없음)에 갔었는데, 아마도 한국의 노래방 문화를 몰랐었는지 처음에는 어색해 하다가 차츰 분위기가 익숙해지자 외국 대표들 간에 서로 노래를 부르겠다고 마이크 쟁탈전이 일어났고, Mr. Walz 부인은 너무 신이 나서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남편의 노래에 맞춰서 멋진 춤까지 보여 주는 등 풍경이 벌어졌다. 지금도 Mr. Viotti 총재는 ICOLD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대표단에게 그때의 추억이 너무 좋았다는 말을 들려주곤 한다.



한복 입은 여인

ICOLD 연차회의는 매년 개최국이 바뀌어 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회의에 참석하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2004년 서울회의가 역대 최고였다고 회상하면서, 3년마다 개최되는 ICOLD 총회(연차회의 포함)를 한국이 유치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으면 한국대담회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회의 준비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또 그 결과가 얼마나 좋았었는가를 실감하면서, 정말로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에서 ICOLD 총회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